

자의성과 보편성의 교점 찾기

Seeking a Meeting Point Between Arbitrariness and Universality

이주연 / 월간 건축인POAR 주간, 건축비평가
by Lee Joo-Yeon

건축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삼아 온 정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의 이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네 전통건축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도 바로 자연과의 조화, 순응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네 전통건축만의 특별한 가치는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건축물이 앉혀지는 땅과 그 건축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관(Landscape)과 환경의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과거 어느 장소에도 있었고 지금도 보편의 원리이며 앞으로도 여전히 보편적 가치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으로 건축과 자연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친화적이나 아니냐의 판단도 지형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이를 토대로 조화를 거스르는 새로운 환경을 엮어내는 것조차도 모두 그 건축적 가치가 우와 열, 화와 불호를 기름하는 잣대로 단정을 내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당위가 설득력을 갖는가에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 더욱 풍요로운 환경이 모색되는 것이라면 그 결과 역시 존중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판단의 단서가 주는 가치와 의미는 얼마든지 자의적일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바로 절대적 원칙과 규범 앞에 놓인 새로운 가능성의 위험을 건축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건축화하고 그 자의적 논리를 보편의 가치로 치환시키느냐가 이 시대 우리에게 정서와 문화를 담아내는 작업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건축가들의 관심일 것이다.

자연 친화의 원칙과 규범

동아방송(전문)대학은 수목이 울창한 산세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과의 순응과 조화라는 건축의 일차적 '규범'에 아주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표고차가 심한 땅의 형편 탓으로 이 학교의 실루엣은 대중교통의 순환질서인 지방도로에서 이 학교에 이르는 진입로로 들어가 한참을 오르 고도 감지하지 못한다. 그만큼 깊은 산세 속에 쑥 파묻혀 있다. 건축주가 확보하고 있는 땅은 골프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넓지만 계곡의 굴곡과 표고의 편차가 큰 지형 여건에 따라, 대학 캠퍼스의 입지 선택은 물론 건축화가 가능한 가용의 땅을 우선 고려하고 여러 환경적 요건들(인프라)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방송대학

전체 배치구성도 마찬가지로. 우선 전체적으로 이 대학 캠퍼스 배치구성은 극도로 정제된 안정성과 합리적인 보편성을 따르고 있다. 설계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결과는 캠퍼스 규모의 확장(증원 및 종합대학 승격)은 물론 장래 새로운 프로그램(방송인력 재교육과 방송 스튜디오 운영 등)을 부가할 수 있는 장소적 여건을 감안한 것이며, 이를 위해 2단계의 설계경기를 치렀고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몇 차례의 대안 작업을 거쳤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완결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프로그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오히려 처음에서 나중으로 옮겨갈수록 '원도시의 색깔'이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흥미를 끄는 대목이다. 그것은 당초 시작단계에서 의뢰인이 제시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상당부분을 설계진에서 마련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지는도 모른다. 배치기법에서 읽히는 기본 요소는 지형의 순응적 해석과 공간 효용성의 원칙, 그리고 단순한 형태구조 등으로 집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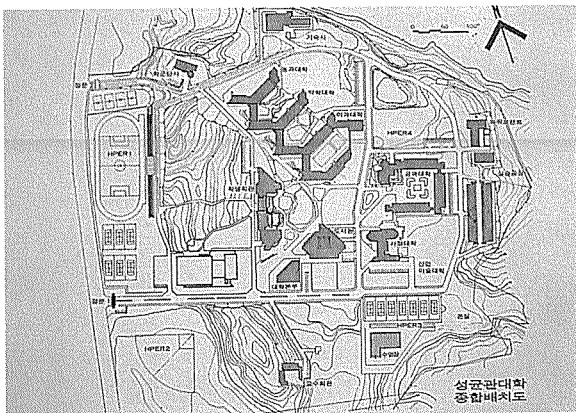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초는 기하학적 간결성과 합리적 기능미에 두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캠퍼스는 중심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중앙 코어가 건축물들로 채워져 있다. 진입로가 인도하는 방향성에 따라 오르다 보면 지형의 높낮이 차이에 따라 진행 방향에 가로놓이는 커를 이루며 건물이 줄을 지어 서 있는 형국이다. 원을 그리며 단지를 감싸는 도로가 건물들을 에워싸며 공간을 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연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배치구도를 보여준다. 여러 채의 건물이 모이는 단지로 구성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중정'의 상징성, 즉 중심성의 강조라는 보편적인 계획원성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건축가는,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은 우선 토목공사량을 줄여야 한다는(이는 곧 공사비의 절감을 의미한다) 제약이 한계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신 산세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집중성을 갖는 중앙 비우기보다는 높이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초는 기하학적 간결성과 합리적 기능미에 두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캠퍼스는 중심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중앙 코어가 건축물들로 채워져 있다. 진입로가 인도하는 방향성에 따라 오르다 보면 지형의 높낮이 차이에 따라 진행 방향에 가로놓이는 커를 이루며 건물이 줄을 지어 서 있는 형국이다. 원을 그리며 단지를 감싸는 도로가 건물들을 에워싸며 공간을 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연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배치구도를 보여준다. 여러 채의 건물이 모이는 단지로 구성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중정'의 상징성, 즉 중심성의 강조라는 보편적인 계획원성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건축가는,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은 우선 토목공사량을 줄여야 한다는(이는 곧 공사비의 절감을 의미한다) 제약이 한계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신 산세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집중성을 갖는 중앙 비우기보다는 높이

차가 큰 지형을 가능한 한 그대로 이용해 계곡의 마당들을 건물의 높이와 흐름을 같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건물 주변에서 작은 마당을 만들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땅과 건물(외관) 그리고 내부가 하나로 느껴지도록 공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예이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중앙에 집중시키기보다 건물군의 배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커에 따라 공간의 질서를 분산시켰고, 건물의 일부를 과감한 스케일로 트임 공간으로 만들어(필로티) 공간과 동선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구석구석 작은 마당으로 보완한 것을 대안으로 들고 있다.

실제로 진입로의 끝에서 첫 대면하는 본관 및 도서관동으로부터 실습, 강의동으로 이어지는 건축물의 스카이라인과 동선의 시퀀스는 모여서 길게 늘어서 있다는 배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큰 스케일로 건물마다 적용시킨 필로티를 관통하며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공간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표고 차가 심한 지형이 주는 시각적 효과가 대입되면서 건물로 둘러싸인 캠퍼스의 공간감을 때로는 내부로 흡입시키고 때로는 밖의 산세로 확장시키는 묘한 시각적 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산을 따라 자연을 감싸며 지어졌던 우리네 전통건축, 특히 경사지에 조성된 사찰의 가람배치에서 읽히는 땅과 건물과 길의 관계를, 이 대학 건물마다에 뿔어 놓은 필로티 사이로 등산하듯 오르고 내리는 길에서 연출되는 풍경과 동선의 흐름을 통해 다시 연상하는 묘미도 만들어 내고 있다. 건물 사이의 '쌈지마당'이 공간의 커를 완충하는 결점이 되며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휴게공간으로 만들고 건물의 스케일에 비해 조밀한 건물군의 밀도를 무마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지형에 친화적인 조형적 기법과 일정정도 뜻을 같이 하려는 의도로 읽히기도 한다.

각각의 건물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형태와 재료가 적절히 배분되면서 일정한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예컨대 학생들을 위주로 한 공간과 강의, 실습 공간, 교수 연구실 등의 공간 프로그램이 동선의 흐름과 교육의 효율적 기능성에 맞물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배치나 형태를 정한 기본 원칙이랄 수 있는 보편적 합리성이 그대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3개대학 배치도

로 적용된다. 그것은 질서에 엄격한 공간규모의 배분과 일정한 모듈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공간변화가 가능하도록 적용한 내부 공간의 플렉시블한 분할에서도 발견된다. 장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 활용의 다변화를 위해 내부는 간단한 칸막이 조절로 조정이 가능하게 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기능성에 기운 공간 프로그램이 다소 자의적으로 보이는 것은 건물의 조직, 즉 독립 개체로 한 동선을 놓고 볼 때 리니어한 형태구성이 갖는 한계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남는다.

땅의 성격과 건물의 관계

건축작업에서 땅(지형과 환경)이 갖는 의미와 영향은 누구나 강조하여 마지않는 기본의 원칙에 해당한다. 그 중요도는 기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해석의 자의성을 동반한다는 합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땅의 성격과 건물의 성격 맞추기의 공식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리고 있다. 이런 해법이 공간의 질서와 건축의 관계에 관한 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대학이 안고 있는 환경, 즉 특수해를 푸는 단서로서의 건축적인 형식의 접근 태세는 그 환경적 질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기실 이 대학 캠퍼스의 규범은 '원도시다운 해법'을 유감없이 발휘한 성균관대 수원캠퍼스(1979)에서부터 연유한다. 성균관대 캠퍼스는 건축의 원리를 교육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데에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큼 강한 집착과 그에 따른 성과를 득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캠퍼스 안의 각 시설군의 배치와 조닝, 각 건물의 형태와 조화, 재료 등 다양한 실험성과 아카데미한 프로그램에서 그 성과를 점치게 된다. 그 가운데 특히 학생회관/본부/중앙 홀 등이 물려 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캠퍼스 핵(중심성)을 강조한 일련의 건물군(이학/농학/약학대학 등을 기하학적인 형태미로 연결해 지은 건물군)이 바로 동아방송대학의 전체 배치기법과 닮았다. 성균관대의 것이 잇닿아 있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생동감이 살아 있다면 동아방송대학의 경우는 각 건물이 독립적 기능과 형식을 가지면서 공간적으로 연계되며, 확장의 생동감도 독자적이고 땅에 넓게 포진하는 수평성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최근에 작업된 동아방송대학의 증축은 수평적 확장이 아니라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결과 지어졌다. 이것은 평지(성균관대)와 경사지(동아방송대)의 환경적 차이에서 오는 선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우기, 영역 나누기, 동선의 시퀀스, 애매한 가운데 은근히 스며나오는 확장하는 중심성 등은 두 대학이 서로 닮았다. 건축공간의 일체감과 확장의 중심성은 표고 차를 이용한 배치로 연결이 곤란한 동간의 질서를 브리지로 이어 놓은 것에서도 그 집착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집중과 분산이라는 공간 프로그램의 적

용 당위가 지형 여건과 토공사 한계로 판가름날 수 있다는 논리는 지형을 기반으로 한 건축화의 가능성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의문하게 하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것은 또 합리성과 보편성에 기댄 도식적인 공간 프로그램에 집착한 때문으로도 보인다. 대학교육의 형식이 강의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교수와 학생의 원활한 동선체계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네 교육시스템의 현실이다. 이른 바 원칙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규범의 맹목적 적용이 그것이다. 학교의 프로토타입이 있어야 한다면 형식에 우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대학의 경우 이런 규범과 원칙을 고수하는 것 대신 전문가교육, 특히 일상의 전문성보다 '특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견지해야 할 교육 프로그램의 미래지향적 시각을 염두에 둘 수 있을 법하다. 건축이 이런 시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건축가 스스로 밝혔듯이 시청각과 관련한 체험, 시야에 대한 무한한 자유로움을 주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건축적인 은유로 풀이해 마치 건물 이 방송을 위한 세트가 되도록 하고자 했다면 제약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대신 건축화의 주요 단서로 삼아 캠퍼스의 구성을 열린 공간의 여유로움이 살아있고, 지형과 자연의 순리는 물론 캠퍼스의 주역인 학생들의 행태와 공동체를 건축공간에 친화적으로 담아내는 작업이 추가될 수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건축적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적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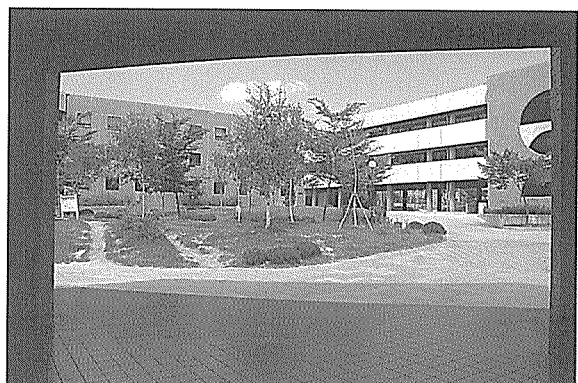
전통이든 서양화된 건축행위이든 건축인들은 규범과 원칙을 잘 적용하고 따진다. 그 틀에서 벗어나면 건축 창작술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치부되기도 한다. 건축의 기본을 위한 원칙이 고정된 틀로 오해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른 바 수학에서 말하는 논리적 공식에 대입해 답을 내는 것과도 같은 건축 디자인의 규범이란 그 아무리 합리적 성과물이라해도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학이 젊은 지성이 꿈을 끼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상아탑으로 작은 사회이자 공동체문화의 실험의 장이라는 통념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 대학은 방송이라는 특수분야 전문직능의 연마를 위한 배움의 터전이라는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교육내용은 물론 학생들의 교내 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건축공간의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캠퍼스생활의 형식적인 룰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에서 모여있고 흩어지는 장소로서의 공공적 사회적 공간의 유용성은 건축공간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건축공간의 장치와 학생활동의 영향 관계는 특히 입지 여건상 학생들이 캠퍼스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형편에서는(지방인데다 산 속에 들어앉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공

간 구성에 따른 건축의 배치와 형태적 요소는 예의 원도시건축다운 보편적 수법을 따르고 있다. 크진 않지만 한 대학 캠퍼스를 마스터플랜부터 전체 건축물의 디자인까지 마무리한 것은 프로그램의 일관된 형식을 유지할 수 있어 통일된 이미지를 담는데 확실한 언어를 주입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간 활용을 주도하는 학생들과 건축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장치는 공공적 성격의 장소에 대한 건축가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 대학의 건축 조직에서 일차적으로 중심을 이루는 건축 어휘인 길과 건축의 관계가 이를 잘 살리고 있는지는 학생들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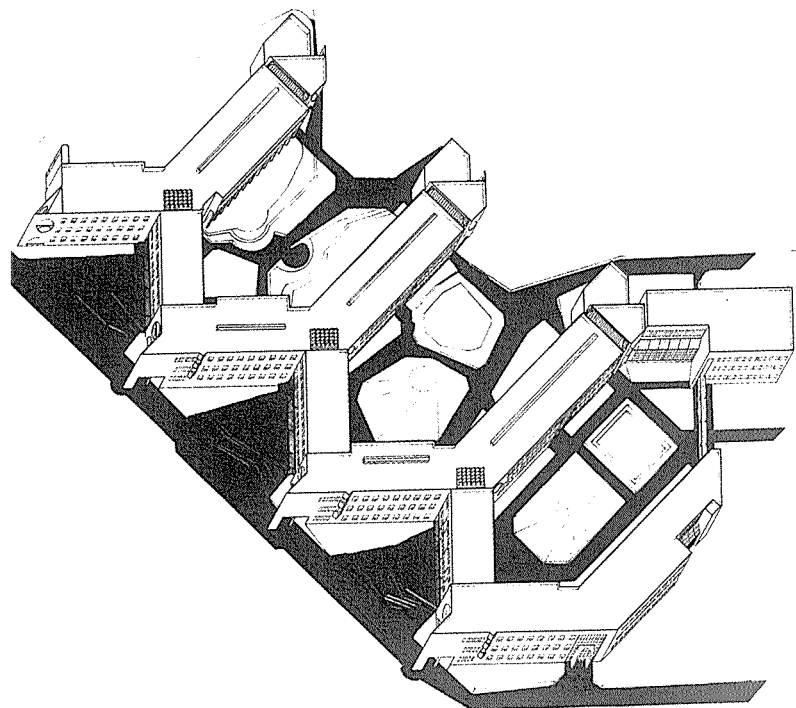
원도시의 규범, 그 가능성

변 용의 원도시가 작업한 동아방송대학 옛보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의 화두, 규범과 원칙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누구나 인정하듯이 원도시건축에는 그들 설계집단이 갖는 성격과 특질이 있다. 이를 설계조직의 아이덴티티, 건축 어법, 철학, 규범으로 이름 붙여보자면 작업의 경과에서 나타나는 원도시적 프로토타입, 원도시다운 건축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변 용은 원도시건축의 중심철학으로, 건축의 보편적 가치가 주장(외연)으로써보다 자연스러움(내포) 속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를 예로 들었다. 겉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자의적으로 드러내는 건축은 사회에 강요하는 것이고, 이는 건축가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결국 보편성 위에 개성이 겹쳐져 은은하게 목소리가 배어 나오는 원칙과 규범이 주는 가치의 힘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생각의 일단이다.

변 용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인류 문명의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진보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인간에 대한 책임이라고 일축한다. 그만큼 단호하다. 원도시건축의 건축관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잔잔한 보수적 정신성이 큰 힘이라고 보고 있는 원도시의 작업마저도 보편을 등에 업은 자의적 건축일 수 있다. 우리가 건축가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원칙과 규범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 자기정신이 깃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성균관내 수원캠퍼스 3개 대학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3개대학

It has been commonly considered a virtue, in the East and West, then and now, that a work of architecture should submit itself to nature. We also never fail to note this issue when we talk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It could well be said that it concerns the inevitable relation between architecture and its site, basically referring to the problems of landscape and environment, which is an omnipresent criterion irrespective of time and space. The issues of whether a work of architecture is in harmony with nature should not be judged solely under its total submission to the other. What is important here is the reasonable ground behind the resulting features, which in turn can be judged by its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Thus the criteria of valuation in these judgments are arbitrary: it would be the concern of the architects to substitute these arbitrariness with a universal value, and to open up new possibilities among absolute canon and principles.

The Canon and Principle of Nature-Friendliness

The Dong-ah Broadcasting Campus is located in a literally dense forest. It is in perfect condition to come in harmony with the traditional, primary value of nature-friendliness. Due to the rough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site, which forbid any early vistas from its approaching road, only portion of the vast site was architecturally valid, and it must have been the architect's initial task to choose the building areas, optimizing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s of the given condition. The overall layout of the Campus strictly follows an order of refined stableness and rational universality. According to the project architect, the design was heavily influenced by the concerns of future expansion and addition of programmes, and was executed through two phases of competition and additional presentation of various alternative choices. What is interesting about this fact is that as the programmes develop they curiously come closer to the basic colors of Wondoshi Architects Group. This can be an obvious result since the requests of the client on its programme

were not fixed, and most had to be suggested by the designers.

The basic principle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layout can be summarized as the submissive interpretation of the geography, efficiency of space use, and simple formal structures. These characteristics are ultimately rooted in the architect's conviction in the geometrical simplicity and the beauty of rational functions. The core of the Campus, symbolically presenting centrality of the whole, is surrounded by a loop line and is filled with a block of buildings placed in a refined order. As we advance from the main entrance, we observe layers of buildings in various heights, in correspondence with the changing contour of the site, standing perpendicular to the approaching road. It did not adopt the usual method of a huge atrium, enhancing its character as the center. The architect wished to diminish the amount of civil engineering, thus reduce the construction cost, and instead make use of the diverse heights and conform the buildings with this, creating a continuous flow among them. In this spatial programme, the land, the surface of the building, and its interior spaces become unified as a whole. The void does not condense itself in an atrium but becomes dispersed in each buildings, disbanding the order of space construction. The piloti structure, on the other hand, forms a vertical void on a grand scale, displaying the composition of space and circulation. The sequence from the entry point to the Exercise Hall passing the Main Hall and the Library goes through the pilotis, providing a constant order to follow, and connects the observer with the space, overcoming its actual repetitive aspects of linear composition. The consistency in the promenade forms a striking contrast with the uneven surface of the land, absorbing the space of the campus to the interior, and at other times, expanding it to the surrounding nature. This brings to mind the harmonious way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especially the temples, dealt with the mountains as their site. The spaces between each buildings, though not abundant in size, build up the layers and provide a void between them, functionally serving as a rest area for the students. It also acts to obscure the high density of this center core. Each building are designed along consistent order, using forms and materials according to its function and role. For instance, the programmes of spaces for students, the spaces for lecture, exercise, and those for the research of professors are organically related and are connected to the circulation of efficient functional performance. Interior composition also display the principle of universal rationality: flexible articulations are made through modulization, dividing spaces with strict scales. Although the adjustable walls open doors for future modification of programmes, we cannot rid ourselves of the feeling that the space programmes based heavily on functional concerns are, on the contrary, arbitrary. It must have resulted from the inescapable choice made within the linear formal compositions, which are indeed the basic order of each buildings.

The Relation between the Site and the Architecture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he land, its geography and surrounding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rchitecture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This importance, however, connotes the danger in the arbitrariness of interpretation, which is variant along the change of functions. There cannot be a fixed, absolute formula between the condition of the site and character of the architecture that occupies it.

This solution is easily accepted as an alternative but rational method in the relation between spatial orders and architecture, but in the case of this Campus, with its own site conditions, it creates a schism from the environmental orders. The canon in the layout of this Campus can find its origin in that of Suwon Campus of Sunggyunkwan University(1979), where Wondoshi Architects clearly manifested their approaching stance. It was a project benefiting from the resolute belief that architectural principles were even effective in the formation of educational programmes. The zoning and layout of buildings, the shapes and materials of each building and their harmony present daring experimental approaches and academical programmes. The center core of the two Campuses bear even more similarities in creating void spaces, dividing areas and the centralization within the obscurity of the circulation sequence's center, but with a difference: where the Suwon Campus chose to link a continuing connection to demonstrate the energy of growth, the elementary buildings of Dong-ah Campus have independent functions and forms, then becoming linked along a horizontally dispersed field. These are partly results of their different site conditions, but the will to form a unity among spaces and to create a center of expansion can be found in the effortful linking bridges between buildings, variant in heights. But the logic that condensation and dispersion of spatial programmes are subject to the site geography and the conditions of civil engineering leaves open the problem of how far can architecture be interpreted under the influence of geography. It could well be a automatic programming of space relying on the accepted values of rationality and universality. If we put light on the lecture as a primal form of education, the circulation connecting the students and the professors become all the more important. But this is application of a given canon without a critical mind: if a school needs a prototype, the programme should not exceed form but become focused on the purpose and function of education. In this Campus, we should not hold the old doctrines of education but create new ones as it is where specialized broadcasting manpower is developed. Architecture should always be into these issues. As the architect himself mentioned, it is a school liberating the students of dead, bound experiences in sight and sound: if so, and if the architect tried to translate these features into architectural metaphors, treating buildings as if they were part of sets from a studio, it should have been added with a broader amount of open spaces. It also should

have been in compliance not only with geography and nature, but with the groups and activities of the actual users, that is, the students of the Campus.

Architectural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ve Architecture

Whether it's a work of traditional architecture or a Western one, we are used to view them by frame of canon and principles. At times, when a work escapes the grasp of this frame, it gets neglected as something beside the boundary of architectural creations. Architecture does not, however, work like a mathematic formula: although the canon of design can result in a rational result, it cannot occupy the core meaning of architecture. This Campus has its unique role as a practicing field for those who will specialize in broadcasting. For those involved in communications, the spatial programmes, as well as the educational programmes, bear an important meaning. The use of public social space as a casual gathering space for the students, in contrast to the formality of educational community, is very much an architectural problem.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and student activities is all the more important since the Campus is located in an isolated area. The layout of buildings and their formal aspects follow the basic principle of Wondoshi Architects, namely the universal solution. The chance to work on the whole, ranging from the masterplan to each building's designs have enabled them to maintain a consistent formal programme and unified visual character. The methods applied to connect the students, the active users of the space, and architecture itself reflect the architect's idea on public space. The process of evaluation on primary tools in the relation between path and architecture in the fabric of the Campus is now left to the students.

The Canon of Wondoshi and Its Possibilities

Let us now return to our early issue, that relating to canon and principle. It is commonly acknowledged that there is a certain style in the works of Byun Yong and Wondoshi Architects, the designers of Dong-ah Broadcasting Campus. Architect Byun, who molds the center philosophy of Wondoshi, has maintained the attitude valuing naturalness(connotation) over assertion(denotation). Architecture arbitrarily exposing its own voice on its surface is actually architecture forcing itself on society. What he praises is a voice, canon and principle, carefully springing out of a universal value. He firmly asserts that it is dangerous to consider the conquest of nature as realizations of civilization's possibilities and as an advance of mankind. This conservative stance praising spiritual values, on the other hand, may yet lead to another arbitrary architecture, appealing to universal, or common, values. What we expect from the architects is a paradigm with new zeitgeist and kunstwollen, free from the obsessions of old canon and principles.